

#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 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韓国文化の表象と諸反応について：  
ディアスポラの視点から

メタデータ	言語: Japanese 出版者: 国立民族学博物館,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作成者: 李, 善愛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a href="https://doi.org/10.15021/00002233">https://doi.org/10.15021/00002233</a>

## 韓国文化の表象と諸反応について：ディアスポラの視点から

李善愛（宮崎公立大学）

### 1 はじめに

本稿は2000年3月17日より18日まで二日間、日本国立民族学博物館で開催された「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のシンポジウムで論議された内容をディアスポラの視点からまとめたものである。

本シンポジウムの特徴は大きく二つに分けられる。一つは、韓国文化の展示からその展示評価にいたるまで日本の研究者とともに韓国の関連研究者が参加したこと。もう一つはシンポジウムで使われた言語が表象される側の言語であることである。

韓国文化の展示の特徴はプラスチックが導入される以前の時期に限定した民族学博物館の方針を変え、民族誌資料を現代のものまで収集・展示して「伝統」の変化性を取り込んで表象したことである。また「もの」をみる側の展示された「もの」への接触、展示された側と「もの」をみる側との対話を試みた。さらに、展示される側と展示する側との相互交流による展示された「もの」への再認識である。

### 2 韓国文化の展示内容

展示は生活用具から韓国文化の多重性と歴史性の表象を試みた。まず、展示場から入って左側の壁から韓国の五千年の歴史を象徴する檀君像をはじめスポーツ、台所、子供の部屋と韓国の中の日本文化などの現代文化、キリスト教文化、儒教文化、仏教文化を伝来順に配列し、一番奥には基層文化の巫俗文化を配置した。巫俗文化は韓国人の喜怒哀楽を表現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向かい側の右側の壁にはチャンスン・ソッテ、平生図、仮面劇、農楽を、それから中央空間部には住生活を表す済州島民家とパティオの酒幕、食生活を表す食膳とキムチ瓶、衣生活と人生儀礼を表すトル（生まれて一年目の誕生祝い）、婚礼衣装、葬服葬輿などの資料を左側の壁の資料と有機的な関係を保つよう配置して韓国在生活風景を想像するようにした[朝倉敏夫 2000]。

この展示は1997年から「『もの』をとおしてみた朝鮮民俗文化」というタイトルで共同研究会を組織して日本の各大学と美術館で活動している韓国文化の研究者たちと、韓国の博物館関係の研究者と人類学者たちの協力によって行われた。

## 한국문화의 표상과 제 반응에 대하여 - diaspora적 시점에서 -

李善愛(宮崎公立大學)

### 1 머리말

본 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이 주최한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문화의 표상』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토론된 내용을 diaspora적 시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집회의 특징은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한국문화의 전시평가에 이르기까지 異文化를 표상하는 일본의 연구자와 같이 異文化 속에 표상되는 한국의 관련 연구자가 참가하였다는 점. 둘째, 연구집회에서 사용된 언어가 표상되는 쪽의 언어였다는 점이다.

한국문화 전시의 특징은, 플라스틱을 도입하기 이전의 시기로 한정했던 민족학박물관의 기본방침을 바꾸어 民族誌 자료를 현대의 것까지 수집·전시하여 「전통」의 변화성을 표상한 것이다. 또, 관람자가 전시된 자료를 만져볼 수 있고, 전시된 쪽과 관람자와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전시되는 쪽의 전시하는 쪽의 엇갈리는 인식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 2 한국문화의 전시 내용

전시는 생활용구를 배치하여 한국문화의 多重성과 역사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우선, 전시장 입구의 왼쪽 벽으로부터 한국 오천년 역사를 상징하는 단군상을 비롯하여 스포츠, 부엌, 어린이의 방과 한국속의 일본문화 등의 현대문화, 기독교문화, 유교문화, 불교문화를 전래 순으로 배열하고 가장 안쪽에는 기층문화인 무속문화를 배치하였다. 무속문화는 한국인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반대쪽인 오른쪽 벽에는 장승과 솟대, 평생도, 가면극, 농악을, 그리고 중앙 공간부에는 주생활을 나타내는 제주도 민가와 파티오의 주막, 식생활을 나타내는 밥상과 김치독, 의생활과 인생의례를 나타내는 돛, 혼례의상, 상복과 상여 등의 자료를 왼쪽 벽의 자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전시하여 한국의 생활풍경을 상상하기 쉽도록 하였다[朝倉敏夫 2000].

이 전시는 1997년부터 “‘물건’을 통해서 본 조선 민속문화”라는 타이틀로 공동연구회를 조직하여 일본의 각 대학과 미술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문화 연구자들과 한국의 박물관 관계 연구자들의 협력에 의해 이뤄졌다.

초빙된 한국의 관련 연구자들은 인류학적, 민속학적, 박물관학적 입장에

招待された韓国の関係研究者たちは人類学的、民俗学的、民俗歴史的、博物館学的立場により多くの意見を出し、これに対する日本の韓国文化研究者との議論が交わされるなか、異文化表象におけるもろもろの問題点が指摘された。

その中心内容について三つにまとめてみた。第一は、民族誌資料の誤った配置とかなりの省略は異文化理解において誤解を招く可能性が高い。第二は、韓国文化の展示に多重性、多層性という時間軸が設定され、現代の生活用具の展示したならば、韓国の植民地文化と分断されている現実を示す戦争・軍事文化に対しても展示するべきである。第三は、展示された民族誌資料がどれほど韓国文化を代表し、伝統を代弁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こでとくに注目したいのは議論の中、第三のところである。議論の第一と第二は、展示する側を中心として少しずつ修正・補完して行けばよいことである。しかし、第三の議論は表象される側と表象する側が一緒に注目すべき問題であると思う。

### 3 表象される側と表象する側

#### 1) 韓国文化の代表性

韓国文化の展示を見回った韓国の研究者たちの意見は、日本人が韓国で日本料理を接するときと、韓国人が日本で韓国料理を接するとき感じる違和感のようなものであると思う。ただ、料理は食べてしまえば後が残らないが、民族誌資料は展示されて「異文化」のイメージを規定してしまうのが料理との違いかもしれない。

先述したように、展示された資料がどれほど韓国文化を「代表」し、「伝統」を示す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これは資料による「真正性」に対する疑問として理解し、韓国文化の停滞性を意味するものとして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

「真正の民族誌資料」あるいは「真正の民族美術」の基準が前提としているのは、それを作りだした「当の社会」が完結し、閉じた、変化のない社会だという考えである。だからこそ、その社会と外部との接触の痕跡を留めるものはすべて「伝統」文化が「変容」を受けた結果として、その「真正性」を否定される。また、その個人による独創性は、その「伝統」を乱すものとして排除される。「真正な民族誌資料」が変化をうけない文化の「伝統」を示し、しかも均質な文化を代弁する以上、その制作年代や作者を表示する必要は生じない。民族学博物館において「資料」の制作年代も作者の名前も、ともに表示されない理由はここにある。しかしながら、それ自体で完結し、外部世界から孤立して、変化を知らぬ社会など、歴史上存在したはずもないとい

서 많은 의견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일본의 한국문화 연구자들 간의 토론에서 물건에 의한 이문화 표상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그 중심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민족지 자료의 잘못된 배치와 지나친 생략은 관람자의 異文化이해에 있어서 오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문화 전시에 다중성, 다층성이란 시간축이 설정되고 현대의 생활용구의 전시를 시도하였다면 식민지 문화와 분단의 현실을 나타내는 전쟁·군사 문화에 대한 전시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시된 민족지 자료가 과연 얼마나 한국문화를 대표하고 전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첫째와 둘째내용은 전시하는 쪽을 중심으로 차츰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셋째 내용은 표상되는 쪽과 표상하는 쪽 모두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 3 표상되는 쪽과 표상하는 쪽

#### 1) 한국문화의 대표성

한국문화 전시를 둘러본 한국의 관련연구자들은,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일본요리를 접할 때와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한국요리를 접할 때 느끼는 위화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단지, 요리는 먹고 나면 그 뿐이지만 民族誌 자료는 전시되어 「異文化」의 틀을 규정해 버리는 것이 요리와의 차이일 것이다.

앞서 말한 전시된 자료가 얼마나 한국문화를 「대표」하고 「전통성」을 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은 자료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로 이해되고, 한국문화의 停滯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吉田憲司에 의하면, “ 「진정한 민족지 자료」 혹은 「진정한 민족미술」의 기준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 낸 「사회」가 完結되고 닫힌, 변화가 없는 사회라고 하는 생각이다. 때문에 그 사회와 외부와의 접촉한 흔적이 있는 것은 모두 「전통」문화가 「변용」된 결과로서 그 「진정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그 개인에 의한 독창성은 그 「정통」을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배제된다. 「진정한 民族誌 자료」가 변화를 하지 않고 문화의 「전통」을 나타내며 더구나 균질된 문화를 대변하는 이상 그 제작연대와 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써 완결되고 외부세계에서 고립하여 변화를 모르는 사회 등은 역사상 존재했을 리가 없다”고 한다[吉田憲司 1999:160].

자료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는 파티오에 복원된 주막에 대한 연구자들의

う[吉田憲司 1999 : 160]。

資料に対する真正性の問題はパティオに復元された酒幕に対する研究者たちの反応からも窺うことができる。酒幕はみる側の参加と体験のため展示として有用な空間になって休憩所としての機能を生かすため作られた。共同研究の責任者が忠清南道地域に残っているものを忠清南道出身の大工を呼んできて復元したのを強調しても酒幕に対して持っているイメージと考えは一致しない。日韓両国の研究者たちの性別、研究地域あるいは出身地によってそれぞれ異なっていることからわかる。

「博物館を民族の権利を主張する場にしようとする動きが高まっている。どの民族をとりあげても、その内部は決して均質ではない。地域・世帯・職業・性別、さまざまな要素のからみあいのなかで、ひとつの民族のなかにも多様な文化と多様な文化観が存在する。そのどれをとって「自文化」の表象とするのか。そして、それを選びだすのは誰なのか。多くの場合、都市に住む一部のエリートのもつ「自文化」のイメージが展示に反映されることになる。結局のところ、「展示をする権利は誰にあるのか」という問いは未解決のままである。展示という営みにたずさわる限り、表象の権利や権力性をめぐる問題から自由にな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かくしてわれわれは、「自文化」の表象としての民族誌展示を論じる際にも、「異文化」表象としての民族誌展示を考えるとときと同じ出発点に立ちもどることになるという[吉田憲司 1999 : 203-204]。

異文化であるゆえに可能な展示もある。展示室の中央においてある葬輿がそうである。普通、韓国では葬輿は汚れものとみなす。これを生活用具として展示することは韓国人には想像を絶するものである。異文化の中で展示されている葬輿はステレオタイプから免れて堂々と資料として機能をしているわけである。これは、私が夜、日本の墓地を通っても日本人が感じるほど恐怖感を感じないのと同じであるかもしれない。いくら電子ガイドの説明で補おうとしても「もの」に対する共有した認識を十分といえるほど伝えられないのは「異文化」表象の限界かもしれない。

## 2) 資料の価値性

汚く色褪せたチマチョゴリが展示されているのをみると、もどかしさを感じる。韓国のことをよく知らない人はそれをそのまま韓国文化として理解するだろう。しかしながら、展示資料の価値にこだわりすぎてよいもの、高級なものは韓国の文化で、よくない、高級でないものは韓国の文化ではないという意味をはらむ恐れがある。生活

반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주막은 참가와 체험을 위한 전시로서 유용한 공간이 되며 휴게소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충청남도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을 충청남도 출신대목을 불러 복원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막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들이 나이와 성별, 연구지역과 출신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박물관을 민족의 권리를 주장하는 장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고양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든 그 내부는 결코 균질하지 않다. 지역, 세대, 직업, 성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뒤얽힌 속에 하나의 민족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문화관이 존재한다. 그 어느 것을 들어서 「自文化」의 표상으로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는 누구인가. 대부분의 경우 도시에 사는 일부 엘리트들이 가진 「自文化」의 이미지가 전시에 반영되게 된다. 결국, 「전시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있다. 전시라고 하는 것에 종사하고 관여하는 한 표상의 권리와 권력성을 둘러싼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自文化」의 표상으로서의 민족지 전시를 논할 때에도, 「異文化」 표상으로서의 민족지 전시를 생각할 때와 같은 출발점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吉田憲司 1999:203-204].

민족학박물관은 세계 제민족의 전통 문화를 변화가 없는 정적인 것으로 표상해버린 것에 반성으로 이번 전시에 김치 냉장고, 플라스틱제 돼지 저금통과 같은 현대적인 器物을 수집·전시하였다.

한편, 이문화이기에 가능한 전시도 있다. 이것은 역으로 내가 밤에 일본의 묘지를 지나가도 일본 사람이 느끼는 공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전자 가이드로 설명한다 하여도 「물건」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만족할 만큼 전달할 수 없는 것은 「異文化」 표상의 한계인지도 모른다.

## 2) 박물관 자료의 가치성

때묻고 빛바랜 치마 저고리가 전시된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낀다. 한국을 잘 모르는 이가 그것을 그대로 한국의 문화라고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전시 자료의 지나친 고급성 강조는 그 반대의 의미를 강조하게 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고급한 것만이 한국문화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한국문화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自文化이미지는 他者를 의식할 때 형성되는 것 같다. 吉田憲司에 따르면 “「일본미술사」는 해외에 일본을 호소하려고 한 自文化의 이미지로서

用具をとおして文化を表象するものなら、生活用具の善し悪しの選択はだれが何を基準に決めるものだろうか？このような自文化のイメージは他者を意識するとき形成されるようである。

吉田憲司は、「日本美術史」は海外に日本を訴えようとした自文化のイメージとして誕生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吉田憲司 1999 : 87]。「日本美術史」は東京国立博物館の前身である帝室の博物館によって天皇とその時の権力者の美術を中心に編成された。東京国立博物館の「東洋古美術博物館」への特化はまた、現代にいたるまで日本人の価値観と自文化イメージに大きな影をおとしている。「美術こそ一国文化の精粹である」という考え方はかなり日本人の意識のなかに定着している。それはまた、美術以外のもろもろの器物に対する関心と評価の低さにつながるという[吉田憲司 1999 : 114-115]。

また、「民族誌資料／民族美術」という概念の創造は、「モダン・アート」という概念の創造と一体になったものだった。西洋が自己を中心とした世界システムを作っていく過程で、非西洋は「他者」化され、変化、創造、抵抗の主体としてではなく、受動的な対象として表象されたものである。ここで、われわれ求められているのは、「資料」と「作品」、「民族誌資料／民族美術」と「モダン・アート」という区別そのものを問い直してみることである[吉田憲司 1999 : 68-169]。

### 3) 博物館の選択のあり方

美術史家ダンカン・キャメロンによると、ミュージアムのあり方には「テンプル」と「フォーラム」という二つの選択肢があるという。「テンプルとしてのミュージアム」とは、すでに評価の定まった「至宝」を人々が「拝みにくる」神殿のような場所である。新しい発見は期待することができず既成の価値観が強化されるだけである。ナショナル・ミュージアムとか、リージョナル・ミュージアムの多くはそのカテゴリーに属する。「フォーラムとしてのミュージアム」とは未知なるものに出会い、そこから議論がはじまる場所という意味である。「フォーラムとは議論が戦わされる場所、テンプルは勝ち誇った者が居座っている場所である。前者は過程であり後者は結果」である。「抵抗と対決、実験と革新などはすべてフォーラムのみ可能なものであり、テンプルには期待すべくもない」という。情報の十字路として国家の境、文化の境を越えてのミュージアムを構想する場合に、求められる新しいミュージアム像はフォーラムとしてのミュージアムである。そのためには展示する側と展示される側との共同

탄생한 것”이라고 한다[吉田憲司 1999:87]. 또 「일본의 미술사」는 동경국립박물관의 前身인 帝室의 박물관에 의해 천황과 권력자와 관계있는 미술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동경국립박물관의 「동양고미술박물관」으로 특별시 함은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의 가치관과 自文化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술이야말로 한 나라 문화의 精粹」라고 하는 생각은 일본인의 의식속에 상당히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미술 이외의 여러 가지 器物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낮은 것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吉田憲司 1999:114-115].

그리고 “ 「민족지 자료/민족 미술」이라는 개념의 창조는 「모던 아트」와 같이 성립한 개념이다. 서양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계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非西洋은 「他者」化되고 변화, 창조, 저항의 主體로서가 아닌 수동적인 대상으로서 표상된 것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자료」와 「작품」, 「민족지 자료/민족 미술」과 「모던 아트」라고 하는 구별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吉田憲司 1999:169].

자료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집착은 他者를 의식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自文化이미지에 대한 강한 주장은 吉田가 지적하고 있는 「일본의 自文化이미지」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3) 박물관의 선택

美術史家 Duncan Cameron에 의하면, 박물관에는 「사원(temple)」과 「광장(forum)」이라는 2개의 선택방법이 있다고 한다. 「사원로서의 박물관」이란 이미 평가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보물」을 사람들이 「배알하러 오는」 神殿과 같은 장소이다. 새로운 발견은 기대할 수 없고 기성의 가치관이 강화될 뿐이라고 한다. 국립박물관이나 지역박물관의 대부분은 그 범주에 속한다. 「광장으로서의 박물관」이란 未知와의 만남을 통해 거시서 논의가 시작되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광장이란 논쟁이 활발한 장소, 사원은 승리를 뽐내는 자가 머물러 있는 장소이다. 前者는 과정이고 後者は 결과」이다. 「저항과 대결, 실험과 혁신 등은 모두 광장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사원에는 기대할 여지도 없다」고 한다. 정보의 十字路로서 국가의 경계, 문화의 경계를 초월하여 세계화된 박물관을 구상할 경우에 그려지는 새로운 박물관像은 광장으로서의 박물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하는 자와 전시되는 자, 그리고 전시를 보는 자와의 사이에 대화와 공동작업을

作業を指向する展示、文化の担い手も参加を組み込んだ展示、期間を限定したテーマ展示の積極的な導入、リピーターの確保、デジタル技術で構築された展示などが必要である[吉田憲司 1999 : 212-230]。

#### 4 おわりに

以上で述べたように『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に対する考えを吉田憲司の『文化の「発見」 現代人類学の射程』を参考・引用しながらまとめてみた。

急速な交通・通信の発達により、ものと情報、ヒトの移動が非常に活発である。そして異文化に接する機会や情報の必要性が増している。このような変化や動きに応じて博物館は異文化がみた自文化、自文化がみた異文化を表象するのに個性と変化を追求し、リピーターが何回も訪れる新しい情報の発信源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

「もの」をとおしてその社会を表象することは大変難しい作業である。しかし、異文化表象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には、一方的ではなく表象する側と表象される側が展示と一緒に参加し、みる側の展示された「もの」との接触・体験と文化の担い手との対話、企画展により常設展の固定化へのイメージを補い、新たな情報の発信源として獲得をとおした「フォーラム」としての博物館をめざすべきであろう。その意味で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新たな博物館の始まりを意味するものであると思う。

#### 【参考・引用文献】

朝倉敏夫 2000「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国立民族学博物館  
吉田憲司 1999『文化の「発見」 現代人類学の射程』岩波書店

지향하는 전시, 문화의 담당자 자신에 의한 「自文化」 전시, 기간을 한정한 테마 전시의 적극적인 도입, 재관람자의 확보, 디지털 기술로 구축된 전시 등이 필요하다[吉田憲司 1999:212-230].

#### 4 맺음말

이상에서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문화의 표상』에 대한 생각을 吉田憲司의 『문화의 「발견」 現代人類學의 射程』을 참고 인용하여 정리해 보았다.

급속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물건과 정보, 사람의 이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의 필요성이 그 만큼 요구된다. 따라서 박물관은 이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본 이문화를 표상함에 있어서 개성과 변화를 추구하여 관람자가 몇 번이고 방문하는 새로운 정보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건을 통하여 그 사회의 문화를 표상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문화 표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이문화 표상이 아니라 표상하는 쪽과 표상되는 쪽이 전시에 같이 참가, 관람자가 전시된 물건을 만지고 체험, 표상되는 측과의 대화, 기획전에 의한 상설전의 고정된 이미지를 수정 등을 통한 「광장」으로서의 박물관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심포지움은 새로운 박물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朝倉敏夫 2000 「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 국립민족학박물관

吉田憲司 1999 『문화의 「발견」 現代人類學의 射程』 岩波書店